

# 전주 · 세종 청년작가 교류전 개최

서노송예술촌 내 '뜻밖의 미술관' 서 29일까지 '20EE 젊은 사유' 교류전 만날 수 있어

전주 서노송예술촌 내 '뜻밖의 미술관'에서 전주와 세종지역 청년작가들의 교류전이 열린다.

전주시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센터장 김성혁)은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뜻밖의 미술관(완산구 물왕동2길 3-6)에서 '20EE 젊은 사유' 교류전(展)을 개최한다고 7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이 주관하는 이번 교류전은, 한국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작은미술관 전시 활성화 지원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추진된다.

'20EE 젊은 사유'는 '2022년'과 사람을 의미하는 영어의 접미사 'EE', 그리고 일상의(Everyday)+모두의(Everyone)를 뜻하는 중의적 의미로 '젊은 작가들의 생각을 담아내는 전시'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뜻을 담고 있다.

지역별로 3명씩 총 6명의 청년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교류전은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세종시문화재단 BRT작은미술관에서 진행된 1차 전시회에 이어, 전주시 뜻밖의 미술관에서 2차 전시가 이어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주시 참여작가인 문민·서수인·이기립 작가가 각각 조각과 유화, 오일파스텔 등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을 만날 수



전주시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은 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뜻밖의 미술관에서 '20EE 젊은 사유' 교류전을 개최한다.

있다. 또 세종시 참여작가인 오완석·이은지·이지혜 작가의 설치 작품 등을 포함해 총 2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김성혁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 센터장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와 유구한 전통을 가진 전주시의 청년작가들이 만나 환경적 차이를 넘어 작품 세계로 서로 교류

하며 동질감과 직업적 영감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287-13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 국립무형유산원 상설전시 도록 발간

전시실 소개 · 주요 전시품 사진 · 설명 등 담아

국립무형유산원(이경훈 원장)은 새롭게 단장한 상설전시실을 소개하고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립무형유산원 상설전시' 도록을 발간했다고 7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2019~2021년 3개년에 걸쳐 상설전시실을 개설했다. 상설전시실1은 '일상의 흥과 풍류'를 주제로 전통공연·예술,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했고, 상설전시실2는 '일상의 멋과 지혜'를 주제로 전통공예기술과 생활관습 관련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시했다.

이에 재개관한 상설전시실을 다각도로 보여주고, 무형유산을 보다 널리 알리고자 상설전시 도록을 발간했다. 도록에는 전시실 소개와 함께 주요 전시품 280여 건의 사진과 설명 등을 담았다.

수록된 전시품은 인간문화재인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이 사용하거나 제작한 복식, 악기, 악보, 도구, 작품 등이다. 전시품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관련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설명을 함께 수록해 무형유산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했다.

도록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가상 현실(VR)로 상설전시실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이외에도 전시장 전경과 다양한 전시 영상 사진도 실렸다.

한편 상설전시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특별할인 프로모션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으로 경찰 · 소방관 · 군인 50% 할인 혜택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경찰, 소방관, 군인을 위한 2022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판소리댄스컬 '몽연-서동의 꽃' (이하 브랜드공연) 관람가 특별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경찰, 소

방관, 군인에게 관람가 50% 할인 혜택(본인 포함 동반 1인까지)을 제공한다. 전화예매 또는 현장예매도 가능하다.

경찰과 소방관은 공무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지참하고 군인의 경우 공무원증 또는 휴가증(의출증, 외박증 등 포함)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11월 9일 소방의 날 제60주년 행사를 기념해 일선 현장에서 희생과 봉사 에 대한 감사에 의미로 마련됐다.

한편, 브랜드공연은 서동(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퓨전 판소리댄스컬이다. 공연은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11월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과 금·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상설공연 SNS(인스타그램) 및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39,746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부안청자' 서해 넘어 아프리카에 알린다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관에 영구 전시 홍보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위치한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한국의 공예품들로 전시되었다.

부안군에 따르면, 주나이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관에 부안관요에서 제작한 청자를 지난 1일부터 영구히 전시하고 홍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의 공예품 전시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주관하여 재외공간을 한스타일 공간으로 연출하여 한국공예문화를 전달하고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한편 대사관에 전시한 작품은 부안청자박물관 '부안관요' 김문식 도예가를 비롯한 시기장

들이 제작한 고려청자를 모티브로 제작한 청자로 한국의 한옥을 모티브로한 수저받침을 비롯하여 청자여의두문반상기 등 총 2종 9점의 부안관요 대표적 청자상품을 전시했다.

부안군 문화관광과 박현경 과장은 "중국에서 전해진 청자를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상감 청자로 발전시킨 부안의 청자를 서해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번 전시를 통하여 한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및 다양한 공간에서 부안청자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마련하여 꾸준히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익산시, 생활문화 담은 공예작품전시회 개최

익산시가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이사장 이명준)는 '생활문화, 마음에 담다'라는 주제로 11일부터 19일까지 슬리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공예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22~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정성과 시간을 들여 완성한 작품들을 한지리에 모아 서로의 색을 뽐내고,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 마음에 담다' 공예작품전시는 생

활문화예술동호회 소속 미술 동호회 회원들이 손수 제작한 수채화, 종이공예,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작품 3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명준 이사장은 "수채화와 종이공예, 캘리그라피 등 익·생·동의 미술 동호회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가기 바란다"며 "2022~2023 익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익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네트워크(063)837-071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준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